

삼과예슬 북촌에 '청원산방' 개원한 소목장 심용식씨

40년 창호 장인 사랑방 문 활짝

소담스런 고택의 사랑방에서 이른 여름의 더위를 식힌다. 고택의 진가를 헤아린다는 것은 그 집에 살아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 서까래 실뭇에 걸린 '돼지 코'가 유머러스하다 문득 생각하면서 이곳에 함께 머무는 이들에게 복덕(福德)이 가득하길 바라는 주인장의 넉넉한 마음 씬뭉이가 정겹다.

"40년이 넘는 시간을 바쳐고서야 겨우 문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알겠습니다. 우리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창호를 제작하고 널리 알리는 심용식(56, 성심예공원 대표, 서울시 무형문화재) 소목장(小木工)이 북촌 한옥 마을에 '청원산방(淸圓山房)'을 개원했다. 형태만을 위주로 삼는 모방이 아니라 드나드는 사람의 심성에 걸맞은 맞춤 창호로 인정미(人情味)를 탐구하는 사랑방이라고 한다.



소목장 심용식씨(사진 위), 종로구 계동 북촌에 청원산방을 개원했다. <사진제공=김성철>

낙산사 원통보전 법당문 복원 눈길 "인정미 탐구하는 사랑방 만들고파"

'맑고 등글다'는 뜻의 '청원'은 심용식 소목장의 아호다. 추사 김정희의 팔체가 담긴 주연을 비롯해 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가 현관부터 손님을 반긴다. 'ㄷ' 자형 한옥에 어우러진 정원으로 마당에 서면 각기 다른 문과 창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한 편에 자리한 시연장에는 300여 점이 넘는 옛 공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랑방의 현판 '계수현(桂樹軒)'은 초정 권창윤 선생이 '청원산방' 글씨와 함께 썼다. 전통문화와 창호의 앞날을 은은한 달빛처럼 비추 주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다고 한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빛을 발하는 한옥 장인들의 숨결이 청원산방의 면모를 더욱 높여준다.

"보기에 들직하면서 여담인데 전혀 무겁지 않으니 얼마나 좋으냐"며 장중한 멋을 풍기는 창 의 외적함을 두고 스님들의 칭찬이 뒤따른다. 산불로 2005년 전소된 낙산사 원통보전의 법당 문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며 느낀 감회 또한 남다르다. 불상이 모셔진 법당에 드는 바람새와 빛의 양을 고려해 심혈을 기울였던 시공이 있음을 되뇌었다.

심용식 소목장은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 구석구석 발걸음을 내딛지 않은 곳이 없다. 춘향복이

지닌 성질을 살려 울공과 향기로운 창호를 제작해왔다. "손의 감각은 기억한다고 믿습니다." 그가 수작업을 고집하는 이유다. 이러한 열정을 인정받아 2008년에는 '서울전통예술인상'을 수상했다.

"북촌에 좋은 한옥은 많지만 마음 편히 둘러보도록 문 연 곳이 없어 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청원산방'을 열었으니 후학양성 뿐만 아니라 대중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심용식 소목장이 목수의 길을 선택한 데는 거창한 명분이 없다. 목욕이 쓰다듬어 온 장인의 숨결이 나무의 결로 회통하고 있었다. (02)715-3342

기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인도미술 '대중 걸음으로'

국립박물관 '인도미술, 신과 인간의 이야기 테마展'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2009년 6월 21일까지 1년간 아시아관 중앙아시아실에서 '인도미술, 신과 인간의 이야기' 테마전을 연다.

간다라 지역의 불교 조각·인도 서북부·동부·남부 지역의 불교 및 힌두교 신상(神像)·17~19세기 회화 등 총 43점으로 구성된 인도 미술품이다. 지난 수년간 국내외 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엄선된 인도 미술 컬렉션이 일반 대중들 곁으로 다가 본격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장 유창종)가 2008년에 기증한 <간다라 보살상>은 기원후 2~3세기에 제작된 높이 117cm의 대형 조각이다. 사실적인 묘사와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인해 간다라 조각 중에서도 걸작으로 평가된다. 2007년 기증품인 <미후나, 사랑을 나누는 남녀>는 인도 북부 지역에서 제작된 11~12세기 석조 조각이다. 미후나(mithuna)상은 인도 미술의 인기있는 모티프 중의 하나로 풍요와 길상의 의미를 지닌다.



보살상, 간다라, 2~3세기

전시하는 '인간을 닮은 신들' '간다라 미술의 신과 이야기' '다양한 신상과 신들' '회화 속 신과 인간의 이야기'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인간 형상을 중시하는 인도 미술의 심미안과 종교 신앙을 소개한다. (02) 2077-9555 기연숙 기자

중국인 '길상' 담은 유물 한자리에

7월 8일까지 북촌미술관서

중국인의 생활 속 깊숙이 뿌리내려 중국사와 호흡해온 길상(吉祥)이 '복(福)'을 주제로 서울 북촌미술관에서 7월 8일까지 전시된다.

중국과 밀접한 지평을 지닌 한국은 생활 풍습의 전반적인 형태에서 유사성을 띤다. 길상이란 기복신앙의 한 종류로서 중국인들의 생활 도처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의 종교이자 신념이다. 우리의 무속신앙과 같은 맥락이다. 아주 오랜 세월이 걸쳐 보편적·전반적으로 신봉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정신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인들은 여러 가지 사물과 형태, 무늬 등에 상서롭고 길하다는 의미를 부여해왔다.



복(福), 중국의 길상. 靑

중국에서 길상은 그 자체로서 기복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인기만큼 관련 유물도 다수 남아 있는 편이며 그만큼 재미있는 작품들도 많이 존재한다. 실�크로드 박물관(관장 신영수·장혜선)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중국의 근대 길상 및 공예 작품으로 회화·공예품·조각·복식 등 약 100여점을 선보인다. (02) 741-2296 기연숙 기자

아! '神氣한 콘서트'

성균관대 새천년홀서 공연

'이주 아픈 날들이 덧없이 흘러갔다.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던 그 꿈들같이, 비나리던 공원길 바람 속에 잠이 들어. 지난 날 햇살 속에 미소 그 속삭임 들리는데.' '광화문연가' '가로수그늘 아래 서면' '붉은 노을' 등 대중음악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작곡가 이영훈

의 마지막 참여 앨범이 박소연의 첫 앨범 '별과 바람의 노래'로 태어났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7월 11~12일 양일간 공연한다.

치과원장 박소연에서 가수 박소연으로 거듭나는 한 자아의 열망을 독려했던 에코페미니스트 현경(세계평화위원회 자문위원)과 함께하는 신기(神氣)한 콘서트다. (02) 3474-2465 기연숙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9일개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3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1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무진장스님(본 대학학장)	최봉수(동국대학교수)	주명철(동방대학교수)
	불교상징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최종석(금강대학교수)	박종(동산불교대학교수)	김상현(동국대학교수)
2년 교과목	법회사상 · 반야사상 · 회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김형준(동산불교대학교수)	정업스님(승가대학교수)	김호귀(동국대학교수)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박종(동산불교대학교수)	김호귀(동국대학교수)
		최종석(금강대학교수)	이명태(충남대학교수)	한안스님(금강선원총재)
		윤열수(문화재단전문위원)	중석스님(승가대학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영규반·주인반·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를 적극 실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 [불교학과] 2008년 6월 30일~ 2008년 8월 2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영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인반)	·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학 일시

불교학과 : 2008년 8월 9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이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성장 카이로 프락터 양성

-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클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근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 대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맞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 자격**
 - 초보자 및 실직·정년 퇴직자
- 기간**
 - 2급과정 (2개월) : 미국 말버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 1급과정 (1개월)
- 장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 입학일시**
 - 2008년 7월 10일 (선착순 20명)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치면으로 전생, 현생, 미래생 탐색 · 니를 찾는다

전생·빙의·자기 치면·치료 치면

- 진정 누가 당신을 능숙한 최면술사로 만들어 줄 것입니까?
 - 수많은 교육생이 바글 거리는 교실에서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얼마만큼의 교육 효과를 얻으셨습니까?
 - 수강비가 수백만원 해아만 고급교육 일까요?
 - 훌륭한 강사입니까?
 - 최면의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최면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 개강일** 2008년 7월 10일(목요일) 오후 2시
교육기간 주2회(총8회) 고급속성 과정
모집인원 선착순 20명
교육비용 50만원
교육대상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류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 교육내용** 자기치면/타인치면/기억력, 집중력 증강/우울증 해소/대인공포/성격개선/스트레스/수면장애/빙의/전생/금연/금주

◆특기 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 평생교육
4. 지방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무료이용



원장 유재안 스님

쉽다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